

KIA 마운드에 부는 '훈풍'

7연전 앞두고 사이드암 윤중현 NC전 선발등판 프로데뷔 첫 승
이민우 3이닝 40구 퍼펙트·한승혁 최고 구속 152km로 '가능성'



이민우



한승혁



윤중현

7연전 강행군을 앞둔 '호랑이 군단' 마운드에 주말 훈풍이 불었다. KIA 타이거즈는 12일 NC와 다이노스와 하루에 두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15일에도 롯데 자이언츠와의 더블헤더가 예정되는 등 KIA는 다음 주 7연전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선발 고진속 강행군을 앞둔 KIA는 주말 경기를 통해 희망을 봤다. 본격적인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사이드암 윤중현이 4번째 선발 등판에서 프로 데뷔승을 거뒀고, 6월 25일 이후 첫 등판에 나선 이민우는 3이닝 퍼펙트로 다시 선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 윤중현은 11일 '난세의 영웅'이 됐다. NC를 상대한 윤중현은 이날 5이닝(73구)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앞서 임시 선발로 역할을 했던 윤중현은 '진짜 선발' 등판에서 자신의 최고 이닝 기록을 '5이닝'으로 늘리며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5-2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을 끝냈고, 경

기가 그대로 5-3 KIA의 리드로 끝나면서 승리수가 됐다. 광주일교-성군관대를 거쳐 지난 2018년 KIA 유니폼을 입은 윤중현의 프로 첫 승이었다. 그리고 이 승리와 함께 KIA는 5연패에서 벗어났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프로 데뷔 시즌을 맞은 윤중현은 안정된 제구를 바탕으로 입지를 넓힌 뒤 첫 승까지 기록했다. 윤중현은 "목표는 3승인데 첫 단추를 끼운 느낌이다. 요즘에 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도 지고 그래서 분위기가 처져있었는데 그걸 내가 끊고 싶었다. 첫 승을 하고 싶기도 했고, 연패 상황에서 첫 승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첫 승 소감을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도 "직구와 변화구 제구가 잘 잡혔고, 구속 차이도 좋았다. 안정적인 피칭을 해줬다. 몸도 선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됐다"며 윤중현의 중용을 예고했다. 윤중현으로 7연전 선발 한 자리를 채우게 된 KIA는 이민우 카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민우는 12일 NC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1-

4로 뒤진 5회초 한승혁-박준표에 이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출격했다. 김기환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은 이민우는 최정원의 땅볼에 이어 나성범의 삼진으로 첫 이닝을 끝냈다. 6회에도 탈삼진 하나를 더한 삼자범퇴, 7회에도 강진성-정현-김주원을 받타로 돌려세우면서 3이닝을 40구 퍼펙트로 처리했다. 경기 전 윌리엄스 감독은 "다음 수요일에도 더블헤더가 있어서 이민우를 콜업했다. 오늘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수요일 선발로 들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민우는 초반 부진을 잊게 하는 깔끔한

피칭으로 윌리엄스 감독의 고민을 지워줬다. 이날 1차전 선발로 나선 한승혁도 아쉬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남겼다. 2019년 스프링캠프에서 내전된 부상을 입었던 한승혁은 몸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해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팀에 합류한 한승혁은 이날 선발로 복귀 후 4번째 등판에 나섰다. 그는 1회를 삼자범퇴로 연 뒤 2회 1사에 볼넷과 전민수의 2루타로 실점했다. 3회 2사에서 최정원을 중전안타로 내보냈지만, 견제사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채웠다.

4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한승혁은 선두타자 나성범에게 초구 안타를 맞았다. 양의지와 알테어를 연속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전민수의 안타에 이어 강진성의 2루타로 두 번째 실점을 하고 물러났다. 이어 나온 박준표가 정현에게 우전 안타를 맞으면서 그의 책임 주자가 모두 홈에 들어왔고, 한승혁의 복귀 후 첫 선발 등판 기록은 3.2이닝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4실점이 됐다. 이날 27개의 직구를 던진 한승혁의 최고 구속은 152km, 평균 149km. 오랜 공백 뒤 실전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을 남긴 등판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하나 '가을의 여왕'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
KLPGA 투어 통산 15승



12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이천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KB금융 스타챔피언십 최종라운드 18번 홀에서 장하나가 우승 확정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장 하나는 12일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이천 골프클럽(파72·668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장 하나는 2위 박현경을 7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6월 롯데 오픈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나흘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받은 장 하나는 시즌 상금 7억5238만원을 쌓아 상금 2위에 올랐다. 평균 타수 1위를 달리는 장 하나는 대상 포인트와 상금 부문에서는 선두 박민지를 추격하는 2위에 자리했다. 장 하나는 이날 우승으로 투어 통산 15승을 달성했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2년 KB금융 스타챔피언십, 2013년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2018년 KLPGA 챔피언십에 이어 네 번째 우승을 이뤘다. 2012년 이 대회에서 KLPGA 정규 투어 첫 승을 따낸 장 하나는 9년 만에 패권을 탈환하며 15승째도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거두는 좋은 인연을 만들었다. 3라운드까지 2위에 5타를 앞선 단독 1위였던 장 하나는 이날 이렇다 할 위기가 없이 2위와 계속 5타 이상 격차를 유지하며 비교적 편안한 승리를 따냈다. 첫 홀 보기로 시작했으나 7번, 11번 홀 버디로 언더파 점수를 내며 2위와 격차를 벌렸다. 이날 최종 라운드는 핀 위치가 어렵게 설치돼 언더파 스코어를 낸 선수가 6명에 불과할 정도로 서

장하나의 1언더파는 2위와 격차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점수였다. 11번 홀(파4)에서 109야드 샷 이글을 잡아낸 박현경이 단독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정민이 2언더파 286타로 단독 3위, 박민지와 최혜진은 1언더파 287타를 치고 공동 4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 상금 1위 박민지는 박성현이 2016년에 달성한 KLPGA 투어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

(13억3309만원)을 돌파했다. 공동 4위 상금 5400만원을 받은 박민지는 시즌 상금 13억3330만원이 되면서 5년 전 박성현의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8타 차 우승을 차지한 김효주는 이번과 288타, 단독 6위다. 박민지는 마지막 날 5타를 잃고 최종합계 10오버파 298타로 공동 32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류현진, 2.1이닝 7실점 최악투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14승에 도전했으나 시즌 최악투로 고개를 숙였다. 류현진은 1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벌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 2.1이닝 만에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홈런 2개 포함 8개의 안타와 볼넷 1개를 허용했고 삼진은 4개 잡았다. 2.1이닝은 류현진의 올 시즌 한 경기 최소 이닝이다. 지난해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류현진이 3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7실점은 류현진의 올 시즌 최다 실점 타이이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3.77에서 4.11로 치솟

았다. 그러나 토론토는 11-10으로 승리하며 와일드카드를 가늠하기 무대에 오를 희망을 살렸다. 류현진은 3-7로 밀린 3회말 로스 스트리플링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류현진은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이인 9패(13승)째를 떠안은 위기였지만, 7회초 조지 스프링어의 극적인 역전 홈런이 나온 덕분에 패전을 면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더블헤더 경기를 7이닝까지만 진행한다. 토론토는 전날 로비 레이(4.1이닝 3실점)에 이어 류현진까지 연달아 볼티모어에 무너지는 충격 속에서도 타선의 뒷심으로 승리를 따냈다. /연합뉴스

서요섭, KPGA 신한동해오픈 우승

서요섭이 제37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원)을 제패하며 2021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2승'에 선착했다. 서요섭은 12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하나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적어낸 서요섭은 조민규(33·14언더파 270타)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KPGA 선수권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따냈던 서요섭은 올해 코리아투어에서 가장 먼저 '다승'을 수확한 선수가 됐다. 2019년 6월 KEB하나은행인비테이셔널을 포함해 통산 승수는 3승으로 늘었다. 서요섭은 KPGA 선수권대회 이후 이달 초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도 공동 6위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선 다시 트로피를 들어 올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대회 전까지 시즌 상금 2억4484만원으로 상

금 순위 6위였던 서요섭은 우승 상금 2억5200만원을 거머쥐어 상금왕 경쟁에도 뛰어 들게 됐다. 3라운드까지 한 타 차 1, 2위를 달린 조민규와 서요섭이 챔피언 조에서 매치 플레이 같은 우승 경쟁을 벌였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2승을 보유했으나 국내에선 우승이 없는 조민규는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3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선두권 성적을 남긴 데 만족해야 했다. 윤상필이 3위(13언더파 271타), 김동민이 4위(12언더파 272타)에 올랐고, 김동은이 5위(11언더파 273타)에 이름을 올렸다. 4년 만에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한 2013·2014년 대회 우승자 배상문이 데일리 베스트에 해당하는 6언더파를 몰아쳐 최종합계 9언더파 275타를 기록, 배웅준, 김승혁 등과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디펜딩 챔피언 김한별과 2017년 우승자 이태훈(캐나다)은 7언더파 277타, 공동 1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